

[ 국제 ]

中,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 추진

■ 의미·배경은

北 달래기... 꼬인 혈맹관계 복원 시도

“중국 수뇌부가 원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면회담일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내에서 떠돌기 시작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訪中)설을 예의주시하던 서울과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 방중설의 근원을 추적하다 중국 수뇌부의 김 위원장 초청 움직임을 포착했다.

北 초청 수용시 이번주 訪中 가능성

◇중 외교부 ‘난상토론’ 결과=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후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전개된 중국과 북한 관계를 어떻게 다룰 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WTO에 가입하고 2008년 올림픽까지 개최하기로 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거듭하는 북한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과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중시한 세력들이 “다시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국이 계속 북한 무시전략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결국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

단을 내린 것이 회의 분위기를 ‘관계 개선론’쪽으로 흐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속내는=이번 초청에는 다분히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어 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등 외교적 위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했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북한의 대결 속에 6자회담이 자칫 실종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심현 의지마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던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영향력이 그것 밖에 안되느냐”는 조롱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 무산론 中 위상 크게 추락

따라서 김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함으로써 단번에 사태를 풀어보자는 기대를 했을지하다.

중국 현지 소식통은 “이번 초청이 성사된다면 대략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9월)이 있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택은=서울이나 중국 현지 소식통들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BDA 문제

에 있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과시하는데다 오히려 중국 내부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계좌를 엄격히 관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北, 그래도 믿을 곳은 중국뿐?

북한의 강경 태도를 확인한 중국은 현재 미국을 상대로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된 ‘성의표시’나 ‘6자회담 테두리내에서 북미 접촉’의 내용성을 보다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노력이 끝내 불발로 그칠 경우 김 위원장의 베이징행은 불발할 수 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당시 원자바오 총리의 ‘요청’도 거부한 북한 수뇌부가 후 주석 명의의 초청마저 거부할 경우 북중 관계가 더이상 복원하기 힘들만큼 험악해져 북한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중국을 믿어보겠다”는 차원에서 베이징을 방문해 최소한 손상된 북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도난 당한 지 2년여 만에 돌아온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왼쪽)와 ‘마돈나’.

뭉크 걸작 ‘절규’ ‘마돈나’ 되찾다

노르웨이 경찰 도난 2년만에...회수 경위는 안 밝혀져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절규’와 ‘마돈나’가 도난 당한 지 2년여 만에 돌아왔지만 회수 경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현대의 불안은 상징하는 걸작으로 꼽히는 뭉크의 대표작 ‘절규’는 ‘마돈나’와 함께 지난날 31일 노

르웨이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두 작품은 2004년 8월 22일 오후 10시경 뭉크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장한 괴한 2명에 의해 도둑맞았다.

노르웨이 경찰은 두 작품이 노르웨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회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그림의 회수와 관련해 어떠한 보상이 지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대변인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두 작품을 되찾았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현재 비밀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슬로AP·AFP=연합뉴스

“힐, 韓·中·日에 對北 무기 관련 교역 중단 촉구”

로이터 통신 보도

3일부터 한·중·일 3국 방문길에 오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중·일 3국에 대해 유엔 결의안대로 북한과 무기관련 교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 관리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이 관리의 또 힐 차관보가 이들 3국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압력에 불응하고 북한의 핵 활동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6자회담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의 특히 힐 차관보의 한국 방문에 대해 오는 14일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작업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 5~10일 중국, 11일 한국을 방문해 각각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공통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구, 하루 평균기온 세기말까지 3도 상승”

유엔 IPCC 보고서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하루 평균기온이 3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유엔 산하기구가 전망하고 있다고 2일 호주 신문이 보도했다.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은 세계의 권위 있는 기상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 보고서 초안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그 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5년 전에 나왔던 IPCC 보고서 내용보다는 다소 밝은 편이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현재 수준으로 묶어둘 경우 지구의 평균기온은 상승해도 오는 2100년까지 2°C선의 상승으로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렌스=연합뉴스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 ‘시르쿠스 막시무스’ 새단장

영화 ‘벤허’ 주무대...로마시 45억 투입

고대 로마의 대표적 유적으로, 영화 ‘벤허’의 무대가 됐던 이탈리아 로마의 원형경기장 ‘시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가 새 단장을 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3일 로마시 당국이 모두 250만 파운드(약 45억7천만원)를 들여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 초

부터 시르쿠스 막시무스에 대한 대대적 보수공사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시르쿠스 막시무스는 2000년 전 3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어졌으며, 영화 ‘벤허’가 재현됐듯 마차경주에 이용됐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후 트랙을 250야드 더 넓힌 650야드로 확장, 12대

의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제대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잡초가 웃자라고, 낮에는 시민들의 조깅 코스로 이용되는가 하면 밤에는 마약중독자들이 찾아들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로마시 당국은 이번 보수공사와 더불어 전면적인 발굴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19세기에 부분적 발굴작업이 이뤄진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차량’ 움직임 포착

한미 정보당국, 잇대령서...추가발사 예의 주시 美, 대포동 2호 겨냥 미사일 MD 실험 성공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훈련까지도 강원도 안변군 잇대령에서 대형 차량 여러 대를 포착,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의 잇대령에서 최근 대형 차량 여러 대가 움직이는 것을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 당국은 이들 차량의 움직임이 노동 및 스커드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식별된 차량에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의 관계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착된 일부 차량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이달 중순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1일 탄도 미사일방어망(MD) 실험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일을 요격,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지난 7월4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당시 MD를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미 행정부와 군 고위관계자들은 대포동 미사일 이 미 영토에 위협을 가할 경우 요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 수신포탄에 바다에 떨어졌으므로 미국 MD의 개발수준이 공개시도되지 않았었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전문강의

양도소득세는 생활인의 세금! 아는 것만큼 이익! 중요내용을 사례중심 강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음. 내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연습

Table with 3 columns: 과 점 (Course Topic), 강의시간 및 내용 (Lecture Time and Content), 개 강 (Instructor). Rows include 양도소득세 (Gift Tax) and 세무회계실무 (Tax Accounting Practice).

세무회계실무 추후예정 회계원리,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추후예정(3개월과정)
○ 기타사항 ▶세법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수강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전화,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전화 접수 후 수강료송금.
정원초과자는 다음 달 수강대상자로 접수.
○ 송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19348 (예금주 - 이미자) FAX.062)234-0053

종합세무회계학원 ☎(062)234-0052 총장로파울스 옆(밀리오래 맞은편)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평생교육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한 학교 형태를 운영하고 그것을 실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습규모를 개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로 우위의 학교 중에서는 선행교육으로 남달라야 합니다. 꼭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학습자들을 배출한 높은 경력으로 일선학교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꼭내영, 교원임용시험은 보수적인 학교에서 ‘꼭내영’에”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학내영 선생, 수석/임대성 교수, 생활/김지숙 교수,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국어/최병태 교수,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지구과학/박경순 교수,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물리/장영민 교수,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미술/김성희 교수, 영어/송옥 교수, 화학/이영철 교수, 일반사회/김영수 교수, 음악/박성진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에듀뷰넷

http://www.eduvie.net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꼭내영 임미선 김성희
국어 영어 수학
최병태 송 옥 임대성
체육 공동과학 일반사회
김용호 위재권 임영민 김형수
현재 상화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가능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개월 무료 등원심재검(회원제)
• 정독서실, 교시원 확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강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
• 전용지침서 사용가능
• 시뮬레이션 무료사용 가능
• 심화반/신설 맞춤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영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무료문제풀이
9월 24일 서무직, 10월 1일 서울시대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9월이론반 첫진도 개강 9월 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취 222-4560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번,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취 개강:9월 4일 ☎227-8088